

한국음악교육학회 2023 추계학술세미나 보고서

A Review of 2023 KMES Autumn Conference

이현수*

Hyunsu Lee

2023년 11월 11일(토)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주관하여 추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특히 학회들이 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회도 <테크놀로지와 음악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최은아 학회장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학술세미나는 이현수박사님의 사회로 주제 발표자 3명과 토론자 3명이 발표를 하였고 특별히 APSMER Seoul의 완료 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테크놀로지와 다문화 음악교육이라는 주제로 버지니아 공대의 교수이신 유혜수교수님이 해주었다. 발표자는 각 나라가 가진 음악의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나라의 음악적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음악적 공통성을 가상악기, 가상현실악기, 메타버스와 같은 인공지능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2023 APSMER(Asia-Pacific Symposium for Music Education Research, 아시아태평양음악교육연구심포지엄) Seoul의 완료 보고라는 제목으로 양종모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었다.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주관하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국제학회는 올해 14회째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참여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였고, 참석인원은 총 456명으로 역대 APSMER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대회로 기록되었다. 대회의 주제는 ‘삶 속의 음악, 음악 속의 삶(Music in the Life, Life in the Music)’으로 3일 동안 각국에서 준비된 매우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각기 다른 문화권의 음악교육 연구자들이 새로운 영감과 지식을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APSMER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장과 운영진들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 발표는 ‘DAW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스포츠 영상 만들기 수업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김영후박사가 발표를 해주었다. 이 발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DAW와 생성

* 부산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형 AI를 활용하여 음악 스포츠 영상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음악적 창의성,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 음악을 결합한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미래역량 향상과 함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였다. 발표자는 학생들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쏟아 부으며 음악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현안에 관한 문제를 수용하는 학습 과정을 음악에 녹여내기 위해 학생이 자기 관심사를 음악에 반영하고 교사와 학생 간에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일어난 것을 관찰 보고하였다. 스포츠 음악콘텐츠 창작 수업을 포함한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발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 창작학습 실행: 히키의 교육과정 모델을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박은경박사님이 해주었다. 이 발표에서는 히키(Hickey)의 교육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음악 창작학습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경험과 학습 내용 및 실행연구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험을 탐구하여 초등학교 음악 창작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및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교실악기 등이 활용되었다. 발표자는 테크놀로지를 음악에 사용할 때 음악 창작역량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음악학습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사는 음악 창작 수업 역량과 테크놀로지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2023년도 추계학술세미나는 <테크놀러지와 음악교육>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음악 프로그램들을 연구자들이 이해하고 음악의 내용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루어졌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질 바라며, 이러한 학술 행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음악교육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